국립심혈관센터, 장성이 최적지

식생활의 서구화와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심혈관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심혈관계 질환은 한국인 사망원인(2006년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단일 질병만 놓고 보면 사망원인으로는 암(27%)이 가장 높지만 뇌혈관·심장질환·고혈압성 질환 등 심혈관계를 모두 합치면 27.3%나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치료·연구를 전담할 국립심혈관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혈관계 치료에 있어 국내 최고 권위자인 전남대 의대 정명호 교수가 주축이 돼 전남대와 장성군이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립심혈관센터를 운영하는 데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 만큼 조선대 의대와 공대 등 지역 대학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정명호 교수 등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혈관계 수술 실적을 보이고 있는 전남대병원의 의료 기술과 장성군이 무상으로 제공한 국립심혈관센터 부지, 의료 센터에 적합한 입지 조건 등을 내세워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지역 전국서 환자 가장 많아
연구 인프라·환자들 접근성 용이
전남대병원·장성군 공동유치 나서

정명호 교수가 심혈관 질환 원인규명과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국립심혈관센터는 연구 인프라와 접근성이 용이한 장성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광주일보 자료사진〉

◇심혈관 질환의 개념과 환자 수 증가=심혈관질환은 심장질환과 혈관질환을 포함한다.

주요 심장질환은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성 심장질환, 부정맥, 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심근증, 심낭질환 등이며 혈관질환에는 뇌졸중, 말초혈관질환, 동맥류 등이 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 근육으로 향하는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

심장질환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관상동맥 질환은 대개 동맥경화에 의해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발생한다. 이를 관상동맥 질환이라 하며 협심증, 심근경색증 급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관상동맥 질환자는 지난 1998년 인구 10만명 당 2.2명에서 3년만인 2001년에는 21.9명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특히 돌연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범인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 93년 인구 10만 명 당 12.5명에서 2003년에는 24.6명으로 10년 사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심혈관질환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돌연사까지 늘고 있는 추세다.

◇국립심혈관센터의 개념과 필요성=국립심혈관센터는 기본적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다양한 심혈관 질환 환자를 치료하고,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궁극적으로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조기 진단,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존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돌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심혈관질환인 것에서 보듯 심혈관 환자는 어떤 경우보다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이 근거리에 있어야 하고, 병원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료팀이 상주해야 하는 등 인프라가 완벽해야 한다.

더욱이 심혈관 질환 환자는 암과 달리 신속한 응급치료만으로도 사망이나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최고의 연구시설 및 진료시설을 갖춘 시설이어야 한다. 이 센터는 장기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흡연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지수가 높아져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에 국립심혈관센터를 건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미국은 60년 전인 1948년에 국립심폐질환센터를 세웠으며 독일은 1972년에 심장센터, 일본 1977년 심혈관센터, 싱가폴은 1999년 국립심장센터를 건립했다.

◇왜 광주·전남(장성)지역에 유치해야 하나?=전남대 병원과 장성군은 장성 나노산업단지에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지는 광주 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광주과기원과 인접해 있다.

심혈관계 질환은 발병 후 3시간 내에 치료가 요망되는 응급질병이기 때문에 국립심혈관센터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접근 용이성, 진단 및 치료장비의 구비가 중요하다.

장성지역은 전남대와 조선대, 전북대, 원광대, 광주과기원 등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수도권과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고속도로나 KTX를 이용해도 3시간 이내면 접근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은 심근경색증 환자가 연간 1천명으로 전국 가장 많은 곳이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근경색증 환자를 치료, 대한순환기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연구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의 현황에 대한 등록 연구'로 학회 역사상 제일 큰 연구이며 정명호 교수가 총괄 책임연구원 직을 맡고 있다.

정명호 전남대병원 교수는 10일 광주과기원에서 열린 '제5회 보건복지가족부 Health Technology Forum'에서 '주요 만성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과 R&D투자 방향 설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심혈관센터는 의료인이 풍부하고 연구 능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 지역내에서 환자가 많고 타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장성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의사고시 실기시험 대비 임상수기센터 건립

30억원 들여 5층 규모…내일 기공식
시뮬레이션실 등 학생들 실기 훈련

조선대학교(총장 전호종)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비한 임상술기 훈련과 교육을 위한 임상수기센터를 건립한다.〈조감도〉

올해부터 의사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이 실기를 훈련할 수 있는 임상수기센터를 조선대학교병원 옆에 위치한 의성관을 증축하는 형태로 건립한다.

임상수기센터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천762.41㎡, 건축면적 623.54㎡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조성된다. 센터에는 사람 같은 SimMan 마네킨을 놓고 진료실처럼 환경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실제 진료를 해보는 종합시뮬레이션실, SimMan 마네킨을 조정하는 조정실, 주요 실습 장비를 두고 실습하는 술기실습실, CPX와 수기실습을 하는 CPX룸 등이 배치된다.

임상수기센터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응급환자, 중환자, 분만 산모 등의 응급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도뇨, 관장 등 다양한 임상수기를 훈련하며 환자에 대한 접근 방법 및 진단, 처치하는 방법을 습득 훈련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또한 향후 도입될 간호학과의 실기시험에 미리 대비하고 의사국시 실기시험의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고시 장소로 활용, 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상수기센터 기공식은 11일 오전 11시 조선대학교 의성관 옆 신축부지에서 열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밝은안과 21 '눈 건강강좌'

'행복한 눈 만들기' 캠페인 일환
안구 건조증 원인·치료법 소개

밝은안과21은 '제39회 눈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지난 6일 오후 병원 8층 문화센터에서 시민 눈 건강강좌를 열었다.

'행복한 눈 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강좌는 '눈 건강상식'이라는 주제로 밝은안과21 의료진이 안구건조증과 눈물 흘림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등을 설명했다.

이밖에 밝은안과21은 '눈의 날'을 맞아 지난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눈수기 공모전을 열었으며 오는 25일 '노인건강을 위한 병원(요양원)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주종대 밝은안과21 대표원장은 "눈 건강은 최근 대기오염과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 냉난방기기 사용으로 각종 질환이 부쩍 증가했다"면서 "눈의 날 캠페인에 참여해 건강한 눈 관리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밝은안과21은 눈 건강을 위해 호남 최초로 눈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해 매월 4차례 이상의 안과부문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한안과학회는 매년 11월11일을 '눈의 날', 11월1일부터 15일까지를 눈 사랑 주간으로 지정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안과에서 검진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희귀난치성질환 통합케어서비스

전남대병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 받아

전남대학교병원(원장 김영진)과 화순전남대병원(원장 범희승)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의 지원을 받아 2010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의료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통합케어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전남대병원은 총 523개의 희귀난치 질환 중 산정특례 대상 119개 희귀질환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만 연 4만여 명에 이르러 통합케어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희귀난치질환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화순전남대병원도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되는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가 절실했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 생명보험협회강당에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전남대학교병원은 희귀난치성질환 통합케어센터 설치 운영비로 1억5천만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희귀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각각 전달 받았다.

2010년 1월 개소 할 예정인 희귀난치성질환통합케어센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가족을 대상 정보 공간, 소통 공간, 정주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중년여성 혈액검사 통해 노인성 치매 예측 가능

중년여성은 혈액검사를 통해 훗날 노인성 치매가 나타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샬그렌스카 아카데미의 디미트리 질버스타인 박사는 아미노산의 하나인 호모시스테인의 혈중수치가 높은 중년여성은 나중에 노인성 치매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온라인 의학전문지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질버스타인 박사는 중년여성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35년간 실시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모스테인 혈중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핸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590평 건물4,500평(매가 210억) 보증금 100억/월세 5,000만원
• 토지590평 건물 750평(매가 98억) 보증금 40억/월세 2,000만원 융자 12억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학사시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1,000평(업무용지)-매가 평당 750만원
• 250평(유흥가능)-매가 평당 1,200만원
• 500평(업무상업)-매가 평당 1,200만원
▶기타용도
• (농장) 동산동 약 2만2천평 평당 12만원
• (녹지) 삼각동 대로변 약 3,000평 평당 300만원(마트, 예식장 등 적합)
• (준 주거지) 동림동 대로변 1,300평 평당 350만원(마트, 예식장 등 적합)
• (주거지역) 장등동 2,300평 평당 450만원 현) 가건물있음(요양원 등 적합)
▶상가매매(상무지구, 상무역세권)
• 상가 150평(9층) 매매가 평당 450만원 개별등기 있음 학원, 독서실, 사무실 등 적합
• 세정 아울렛주변 역세권 상가 있음 대형의류매장가능 전화상담 환영
◉ 부동산 교환상담 환영 ◉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금산공인중개사
T.681-5666 H.011-801-5354
(금호동 서광주 역 건너, 2순환도로변)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위 치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4면 광로변)
대 지
약 2850㎡, 가격 협의결정
•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
• 최고의 교통접근(광주시청 접근성과 5.18 광로변)
• 광주 최고의 상권,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
•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한길부동산중개
광주 서구 쌍촌동 1301-1(상무지구 5.18공원 앞)
상담전화 ☎ 011-647-4114
주유소 매매
북구 중흥동 1,250㎡
매매가 12억(임대가)
대로변, 위치좋음, 공시지가이하
현 임대 수입 : 보증금 21,000만, 월 800만
- 전원주택 매매 -
화순군 춘향면 용두리 69번지
대지 1,270㎡ 매매가 4,500만
◉ 상담전화 ◉
☎011-647-4114

금호부동산컨설턴트
☎224-5959/010-2831-1733
광주 전남권 부동산 10-35% 할인
* 급매 부동산 중개 *
* 경매 부동산 중개 *
* 대출 부동산 중개 *
부동산 투자는 금호부동산 컨설턴트와함께
전화 224-5959 / 010-2831-1733

경매전문회사
HK 호남경매컨설팅
무료 상담 ☎ 062)228-6600 H.P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의 낙찰가 제시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잔금 대출알선(낙찰가의 50%~80%)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